

한국어문장 구조의 이해

조운경

수량표현

[개념] 수량 표현은 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수량이나 순서 등을 나타낸다.

커피를 **두 잔** 이상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.

비둘기 **세 마리**가 날아들었다.

공부 열심히**들** 해라.

그 사람들 **셋이**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.

[유형] 수량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.

- 1) 수사와 수관형사
- 2) 수량화와 분류사
- 3) 복수표현

1. 수사와 수관형사

1) 수사 :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대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구분된다.

양수사는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유어계는 ‘하나, 둘, 셋 ... 열, 스물, 서른, 마흔, 쉰, 예순, 일흔, 여든, 아흔, 아흔 하나 ... 아흔 아홉’ 으로 나타난다. 한자어계의 양수사는 영, 일, 이, 삼, 사, 구십구, 백, 백일 ... 천, 만, 억, 조 등으로 나타난다.

구분	양수사
고유어계	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... 스물
한자어계	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, 팔, 구, 십, 이십 .. 삼십 .. 사십

〈예〉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다.

한국에서 숫자 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숫자가 아니다.

2) 수관형사 :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하여 사물의 수량을 표시한다. 고유어계의 경우 '하나'에서 '넷'까지, 그리고 '스물'의 형태가 다른 것에 유의해야 한다.

수사	하나	둘	셋	넷	다섯	여섯	...	열	스물	서른
고유어계	한	두	세 (석, 서)	네 (넉, 너)	다섯	여섯		열	스무	서른
한자어계	일	이	삼	사	오	육		십	이십	삼십

〈예〉 남편이 꽃을 한 송이 사 왔다.

보통 나는 혼자서 삼인분의 고기를 먹는다.

2. 분류사

- ▶ 수량의 단위를 표시하는 의존명사이다. 수관형사 뒤에 나타나며 ‘마 리, 그루, 켈레’ 등과 같은 고유어계와 ‘명(名), 개(個), 대(臺), 장 (張)’과 같은 한자어계로 구분된다. 이런 분류사는 ‘명’은 사람, ‘마리’는 동물 ‘개’는 사물 등으로 대응되며, 대응관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.

1) 고유어계로 된 수관형사를 사용하는 분류사

구분	한국어
사람	명, 사람, 분, 구(시체)
동물	마리, 두(네 발 짐승), 필(네 발 짐승), 수(두 발 짐승)
식물	그루, 포기, 송이, 뿌리, 줄기, 가지
사물	개(보편적인 것), 장(얇고 평평한 것), 가닥, 가락(길고 가느다란 것), 알, 방울(동그랗고 작은 것), 모(모난 것)
기능성	대(운송 수단이나 기계), 자루(문구류), 벌(의류), 권(책), 통(지나 문서), 편(영화 드라마 등), 칸, 채, 동(건축물)

▶ **사람**

- ▶ 오늘 학교에 몇 명이 왔나요?
 - ▶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회의에 참석했다.
-

▶ **동물**

- ▶ 닭장 안에 닭이 한 마리도 없었다.
 - ▶ 소 한 두에 얼마입니까?
-

▶ **식물**

- ▶ 학교에는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있다.
- ▶ 나무 한 그루, 풀 한 포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.
- ▶ 남자 친구에게 장미 열 송이를 선물로 받았다.

▶ ■사물

- ▶ 사과 두 개만 주세요.
 - ▶ 사무실에 가서 다섯 장 복사를 좀 해 주세요.
 - ▶ 밥에 머리카락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다.
 - ▶ 콩 한 알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.
 - ▶ 친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내렸다.
-

▶ ■기능성

- ▶ 민수는 자동차를 세대나 가지고 있다.
- ▶ 연필 한 자루만 빌려 주세요.
- ▶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양복 한 벌을 준비했다.
- ▶ 영화에 관한 책 두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.
- ▶ 집 한 채에 방이 네 칸씩 있다.

2) 한자어계로 된 수관형사를 사용하는 분류사

구분	한국어
사람	인, 인분
날짜 및 시간	년, 월, 일, 개월
돈	원
기능성	층, 쪽, 세(나이)

- 사람

여기 뷔페는 성인 일 인당 삼만 원입니다.

사람이 적게 왔으니 5인분만 시키자.

- 날짜 및 시간

오늘은 이천십칠 년 오 월 이십사 일이다.

결혼 한 지 5개월 되었다.

3. 복수표현

1) ‘-들’의 첨가

한국어에서 복수표현의 대표적인 형식은 ‘-들’이 첨가되는 것이다.
그러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.

〈예〉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.
너희들끼리 가는 게 좋겠다.

‘-들’은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에는 같이 사용하나 ‘물’이나 ‘공기’ 등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 또한 무정명사보다는 유정명사에 더 많이 사용한다.

(1) 가.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. 나. 너희들은 어디로 가겠느냐?
 다. *학생 셋들을 만났다. 리. *학생 세 명들을 만났다.

(1*) 가. 사람이 많이 모였다. 나. 너희는 어디로 가겠느냐?

(2) 가. 학생들이 운동장에 많이 모였다.
 나. *물들이 많이 흐른다.

- 셀 수 없는 명사에 붙어 사용되기도 하고 명사가 아닌 성분에 붙어 복수를 표시하기도 한다.

〈예〉 어서 밥들 먹어라.

빨리들 오지 않고 뭐해?

우선 앓아들 있어라.

- ‘많은, 여러, 다수의, 다량의, 온, 모든, 전(全), 일부의’ 등과 같이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여 복수를 표현하기도 한다.

(1) ㄱ. 그 마을에는 집집마다 태극기가 펄럭인다.

ㄴ. 골목골목에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다.

연습문제

1. 밑줄 친 부분이 수사로 쓰인 것을 고르십시오.

㉠ 빵 하나 주세요.
㉡ 발표자가 세 명을 정해졌다.

㉢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.
㉣ 나는 한국을 세 번째 방문했다.

① ㉠
③ ㉡

② ㉢
④ ㉣

〈해설〉

수사는 명사, 대명사와 함께 체언에 속하기 때문에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. ㉠의 경우, 하나 뒤에 ‘를’이라는 조사를 붙여도 문장이 가능하므로 수사로 사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. ㉢, ㉣, ㉡의 경우 체언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관형사로 볼 수 있다.